

“이길 후보 밀어주자”...정권 재창출 염원 지지층 뭉쳤다

이재명 승리 배경과 의미

경선 초반부터 '대세론' 작동

팬데믹 속 강력한 리더십 돋보여

친문 끌어안기도 승리 원동력

막판 대장동 여파 '턱걸이 과반'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2개월 여간의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을 내렸다.

이 지사는 11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의 고향 광주·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과반 득표율을 올렸고, 세 차례에 걸친 국민선거인단 투표 중 두 차례(1·2차) 슈퍼위크에서도 압도적 득표율을 얻으며 결선 투표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다만, 애초 압도적 과반 득표율로 본선 직행이 점쳐졌지만,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얻으며 가까스로 본선행에 몸을 실은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30만5000여명의 국민선거인단 중 2만 4800여명(투표율 81.39%)이 참여한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의 저조한 득표율을 얻어 경선 최종 누적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지사의 경선 승리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선 초반부터 형성된 '대세론'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론 1위 후보를 지켜오면서 '대세론'이라는 여론을 형성했던 점이 민주당 경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경선 막바지에 '대장동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 지사의 '대세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과 범 진보 진영 측에서 1위 후보인 이 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 확산을 통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리며 압승을 이어갔다. 이는 여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선 진영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확실하게 등에 업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이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돋보였던 점도 경선 승리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단 감염을 촉발했던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정부보다 앞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한 과감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 끌어안기에 적극 나선 것도 이 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과 대척 관계에서 있었지만, 이해찬 전 당 대표를 비롯해 꾸준히 '친문'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세력을 키운 점도 경선 승리의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는 표심 결과는 이 지사와 민주당이 본선에서 풀어야 할 중요 과제로 꼽힌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 지사가 과반 이상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지만, 마지막 3차 투표 결과에서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지사 측과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어느 정도 민심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 확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약재에도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이낙연 경선 후보, 송영길 대표, 박용진, 추미애 경선 후보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사이다'로 불리는 이 지사의 강한 리더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심각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수락연설서 '이재명 정부' 천명 문재인 정부 발전적 계승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후보직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를 부각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본선 무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경선을 함께 치른 다른 주자들을 거명한 뒤 "동지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며 "4기 민주당,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 지사는 '4기 민주당'라는 말도 함께 사용했고, 또 "더 유능한 민주 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이재명 정부'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든 것은 그만큼 자신이 책임지고 새 정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과반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지난 5~7일 전국 1천명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야당 후보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은 52%를 기록했다.

여야의 초집전이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재명 정부'라는 단어를 내걸며 현 정부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나아가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필두로 이재명 표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을 꺼내들면서 표심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본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전략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통한 시대 교체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국정 지지도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선긋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오히려 집토끼를 놓치는 자승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지사로서 정권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 계속되면 차별화 유혹이 강한 건 사실일 것"이라며 "발전적 계승"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건적·제한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돌파·호남민심 결집·중도 확장 최우선

대권 티켓 거머쥔 이재명 남은 과제

더불어민주당 '대권 티켓'을 거머쥔 이재명 경기지사는 향후 '대장동 개발 의혹' 돌파 그리고 '민주 개혁세력 대통합 및 민주당 원팀 구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3차 국민선거인단(슈퍼위크) 투표에서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민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본선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돌파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중도층을 흡수하고, 호남 민심 결집,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는 '2030세대 이탈표심'을 다시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이 지사의 선결과제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이 정치적 이슈로 남아있는 만큼, 향후 이 지사 및 민주당의 대응과 중도층의 표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지사의 대권과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대장동 의혹이다.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속에서도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지만 본선 무대에서 캐스팅보트 격인 중도층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문제는 이 지사의 중도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약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대장동 게이트'의 불길기 어디까지 번질지 가능성이 힘들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이 '본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1차·2차 국민선거인단에서 50%이상의 과반 득표율을 얻었던 것에 반해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확보한 28.30%의 저조한 득표율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정가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물인 유동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향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표심을 본선에서 어떻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 캠프 측은 최근 광주를 방문해 '호남에서 80%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서 안정적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또,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를 통해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일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민주당 안팎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원팀'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에서는 "본선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표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호남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젊은 표심을 사로잡는 것도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 원팀을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이 이 지사의 손을 빠르게 잡는 게 원팀의 첫 걸음"이라면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 결집 뿐 아니라 중도층과 젊은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